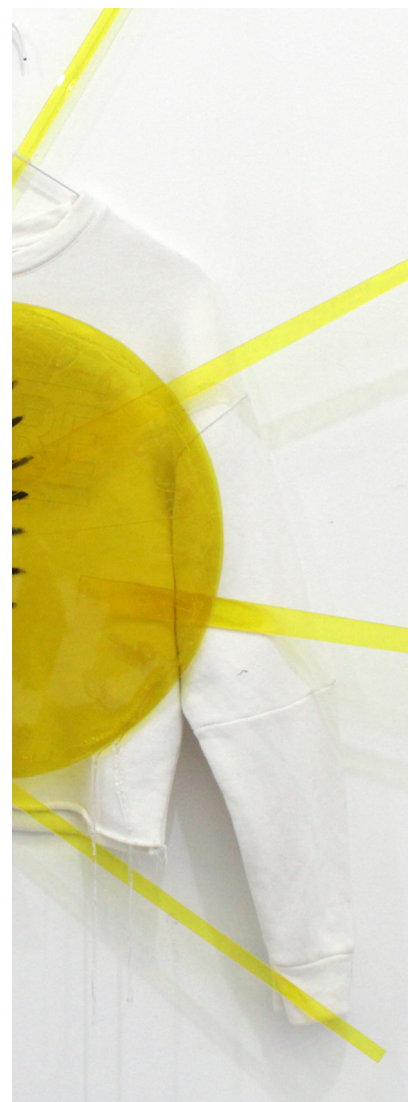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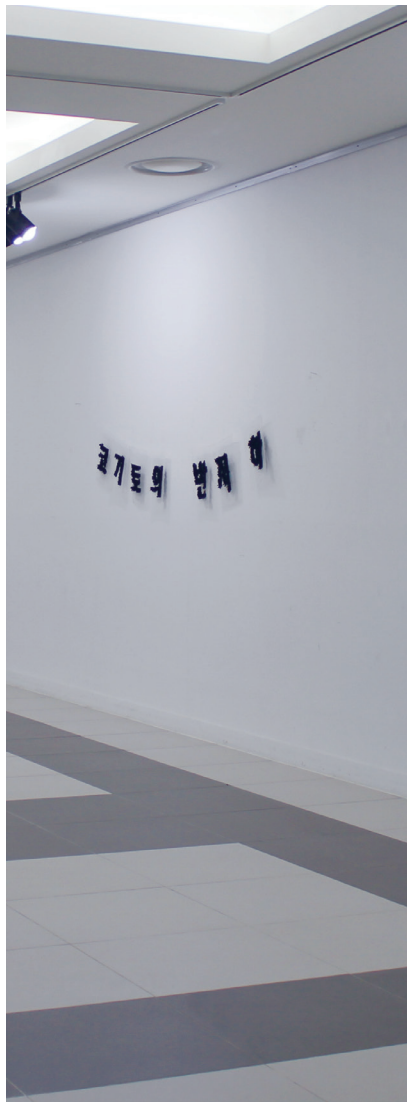


COGITAT ERGO

SUMMIT PRIMA
EXHIBITION

CONCEPUS

CONTENTS



COGITO

JIEUN

CHANHE

MINJI

JUNGHE

WORK SCENE

코기토의 반지하



코기토의 뜻은 데카르트의

기본 철학원리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이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코기토는 몽상가의 코기토이다. 이것은 외견상으로 본다면, 불가피하게 고독한 의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은 고립되어 있거나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몽상가의 코기토는 항상 활발한 활동을 하는 의식이며, 꿈꾸어지는 대상들을 찾아 자신을 감싸도록 하고 그 안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다.

따라서 코기토의 반지하는 그동안 수면 위로 드러내지 못했던 것들, 끊임없이 내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다시 활발한 활동을 하게 하려는 의지를 말한다.



JIEUN RYU

Q. 예술이란?

모르겠습니다. 예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작업을 하면서 이 지면을 계속해서 써 내려가야 할 대답인 것 같습니다.

Q. 예술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예술이 타인을 통해 얻는 만족감이 보람이라고 한다면, 작업실에 가스 점검하러 오는 아주머니가 저의 작업을 보며 좋아하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유 없이 작업을 좋아해주는 보통의 사람들이 만날 때 예술가로 인정받다고 느낍니다. 또한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며 소통할 수 있을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의 길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고 싶은 작업을 하고 있을 때 행복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작업을 지속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목표와 계획은 작가로서의 삶이 아닌 현실에 있습니다. 작업으로서의 목표는 작업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Q. 나를 자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소리, 눈이 오는 소리, 바람소리, 문학과 지성사에서 나오는 시들, 사막이나 오지여행에서 만나는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많은 아티스트들.

Q. 전시된 작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며 작품을 통해 전

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의 작품은 모두 판화가 기본 베이스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전시장 안의 <가족사진>이라는 17점의 시리즈 작품은 사진을 찍는 가족들이 주인공이고 카메라의 시점이 점점 멀어지면서 가족과 집의 모습이 아버지의 뒷모습에 가려지게 됩니다. 이 연속되는 장면을 통해 각자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Q. 작업활동 외에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바쁩니다. 작가들은 모두 생활인으로서 경제적 책임을 지는 일에 전국을 왔다갔다합니다.



<Clothes>,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Box>,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CHANHE KIM

Q. 예술이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놀이라고 생각합니다. TV나 컴퓨터, 스마트폰 등 다양한 놀이문화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접하지 않아 멀어지고 어렵게 생각하게 되었을 뿐이지 예술의 출발은 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Q. 예술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관객들이 작품을 보며 즐거워할 때, 작품으로 인해 자극을 받고 사고하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 작품을 갖고 싶다고 이야기 할 때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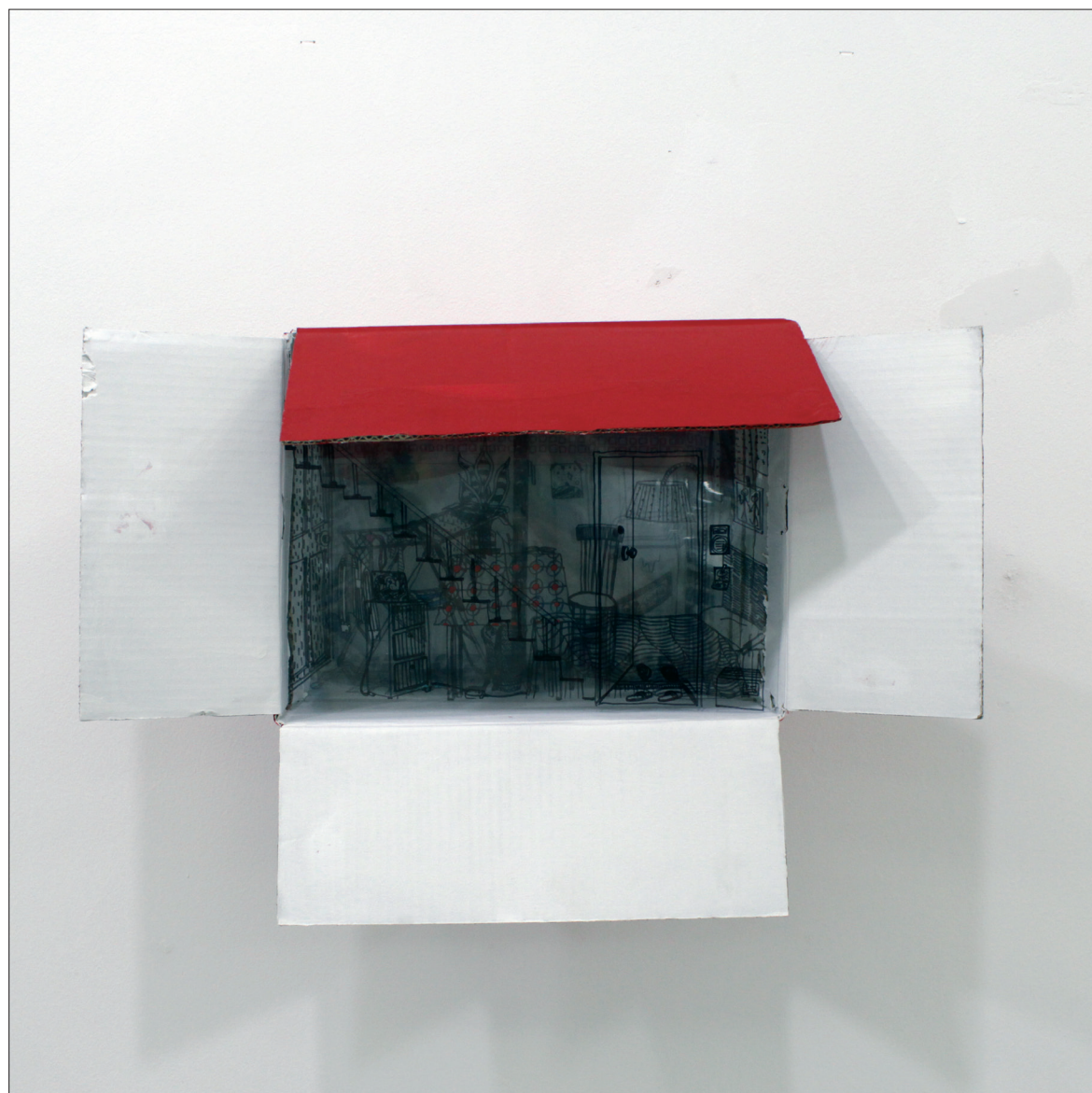
현재까지는 저의 가족에 대한 표현이 주를 이루었는데 조금씩 그 반경을 넓혀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표현 할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소재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작업을 통해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고의 의미와 가치 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나를 자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를 자극하는 것들은 작업실 월세와 공과금입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떠올리면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작업의 소재가 되고 있는 '가족'은 늘 저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Q. 작업활동 외에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대부분의 시간은 작업을 하는데 사용하지 않지만 스스로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개인적인 시간이나 여유를 내기 쉽지 않습니다.



<Box>,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Clothes>,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MINJI KIM

Q. 예술이란?

가족 또는 사회라는 시스템에 반드시 포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탈을 제시해주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상으로부터의 일탈은 다시 손쉽게 돌아올 수 있는 일탈이므로 더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예술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첫째는 스스로 만족스러운 작업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작업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둘째는 관람객들이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까지처럼 작업을 재미있게 진척시키는 것과 더욱 좋은 작품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나를 자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자극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사고와 감각은 우주처럼 크고 거대합니다. 이처럼 커다란 세계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만나게 될 때 수많은 낯선 감각들이 생긴다고 봅니다.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충돌 또는 교감 등 감각적인 부딪힘을 들여다보며 자극을 받습니다.

Q. 전시된 작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탄생하며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의 작업은 느리게 걸어 나옵니다. 이 작업은 2013년 2월에 시작해서 일년간 엮고, 짜고, 바느질한 배와 그물입니다. 사랑하는 일년 동안 한꺼번에 헤어진 지난 시간들을 이겨낼 방법이 없어서 노동으로 버틴 흔적이지, 이것을 작업이라 생각하며 시작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내가 떠나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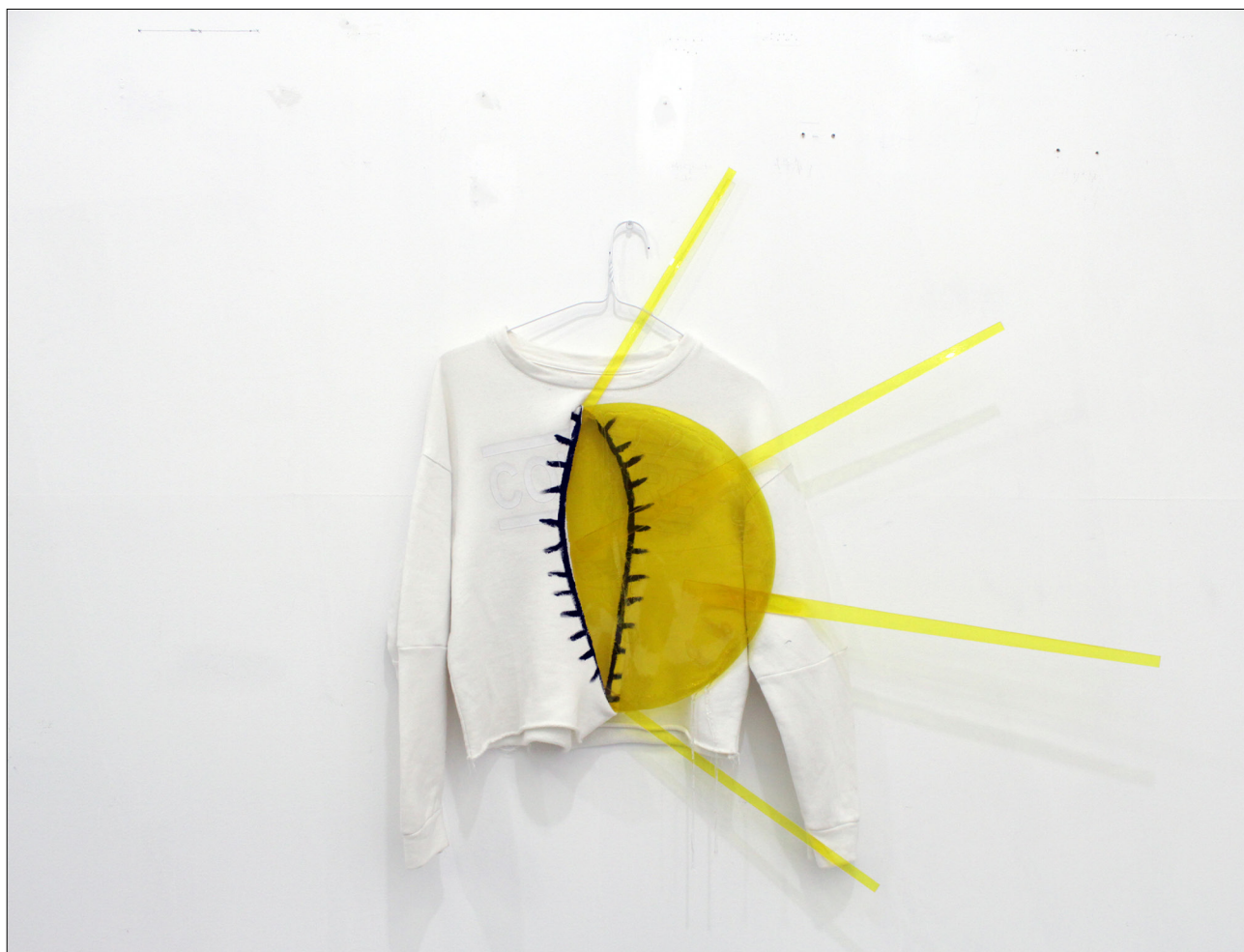
싶어서 배를 만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고양이 근교에 그들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다니던 기억이 있습니다. 촘촘하지 않은 그물로 성글게 낚고 나머지는 모두 빠져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Q. 작업활동 외에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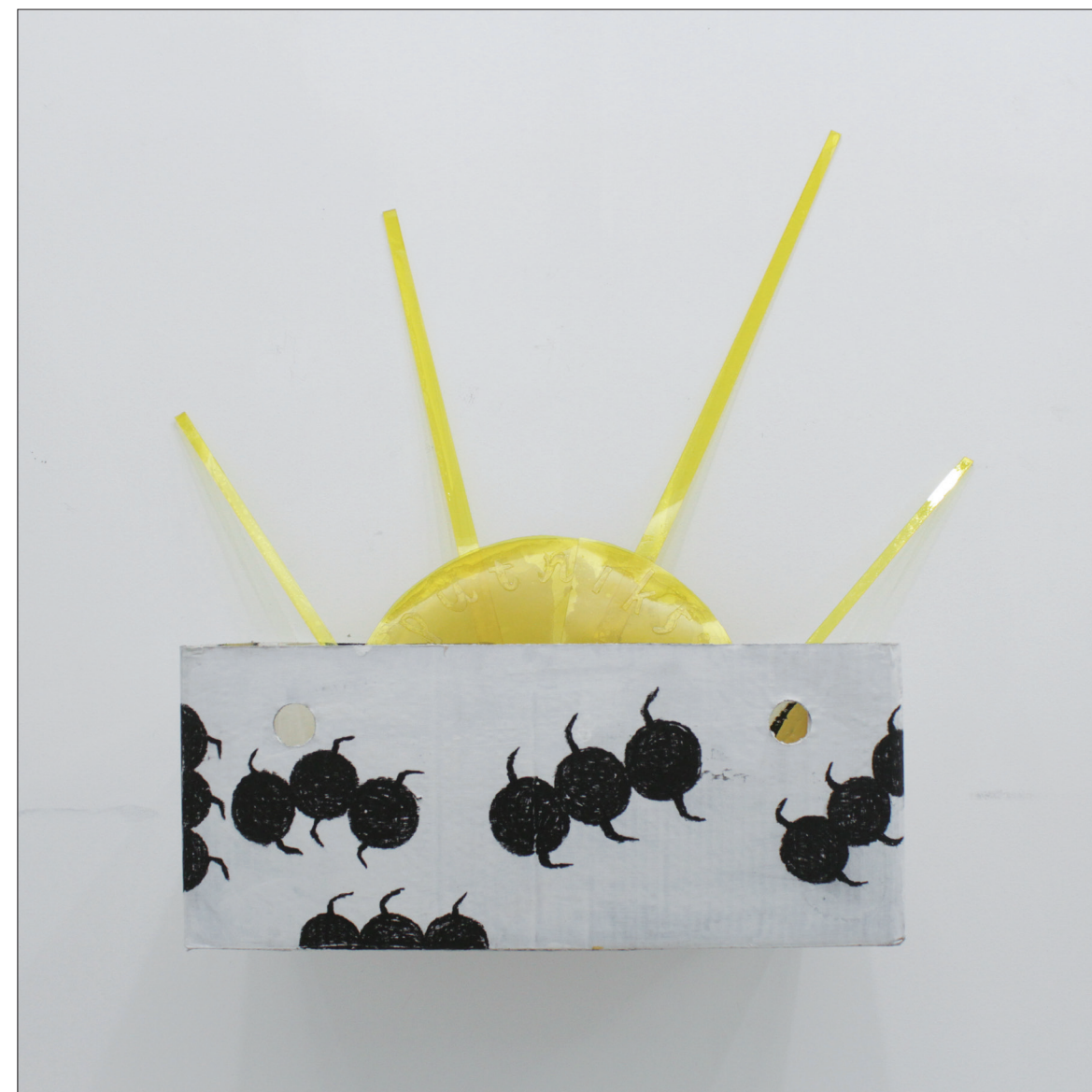
목공과 장애인 미술교육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작업이 힘들거나 의욕이

없을 때 목공 작업은 스트레스 해소를 해주며, 장애인 미술교육은 그림으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힐링이 되고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유시간이 생길때는 잠을 잡니다.





<Clothes>,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Box>,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Q. 예술이란?

예술은 작가가 경험한 감정을 타인에게 옮길 목적으로 일정한 외면 부호로 이를 표현할 때 비롯된다. -톨스토이-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 이야기 하자면 예술이란 일
상 속 여러 풍경과 이야기를 잘 다룰 수 있는 재료를 가지고 전달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화선지 위에 수묵으로 도시풍경을 그리며 감상자에게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Q. 예술가로서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작업이 완성될 때, 그리고 그 작업을 관람객에게 선보일 때 보람을 느낍니다. 특히 작품을 보고 관람객이 감동할 때, 작품 속 공간을 특별한 시선으

로 바라볼 때에 관한 기억이 작품활동을 계속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Q. 앞으로의 계획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아트스페이스루’에서 개인전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7년만에 개인적이라 앞으로의 방향에 관해 많은 고민을 갖고 임하였습니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들은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을 소재로 서울의 과거 모습과 현재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독특한 수묵풍경을 보여주고자 하였습니다.

Q. 나를 자극하는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전시장에서 저의 작품을 직접 볼 때

자극을 받습니다. 좋고 나쁨이 극명히 보이고, 좀 더 좋은 작업으로 보여지고 싶은 욕심이 끝없이 생깁니다. 이렇게 여러 자극을 받고 작업실에 돌아오면 ‘또 무엇을 그릴까’ 하는 긴 고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Q. 작업활동 외에는 평소에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취미로 블록을 조립합니다. 여러 조합으로 만들고 부수고를 반복하여 먹의 표현법에 관한 연구를 합니다. 블록들이 조밀하게 또는 단순하게 조립되었을 때 주는 견고함의 차이를 보고 화면에서 먹의 강약 조절을 상상합니다. 평소에도 작업활동과 관련된 일로 시간이 메워지는 것 같습니다.

JUNGHE 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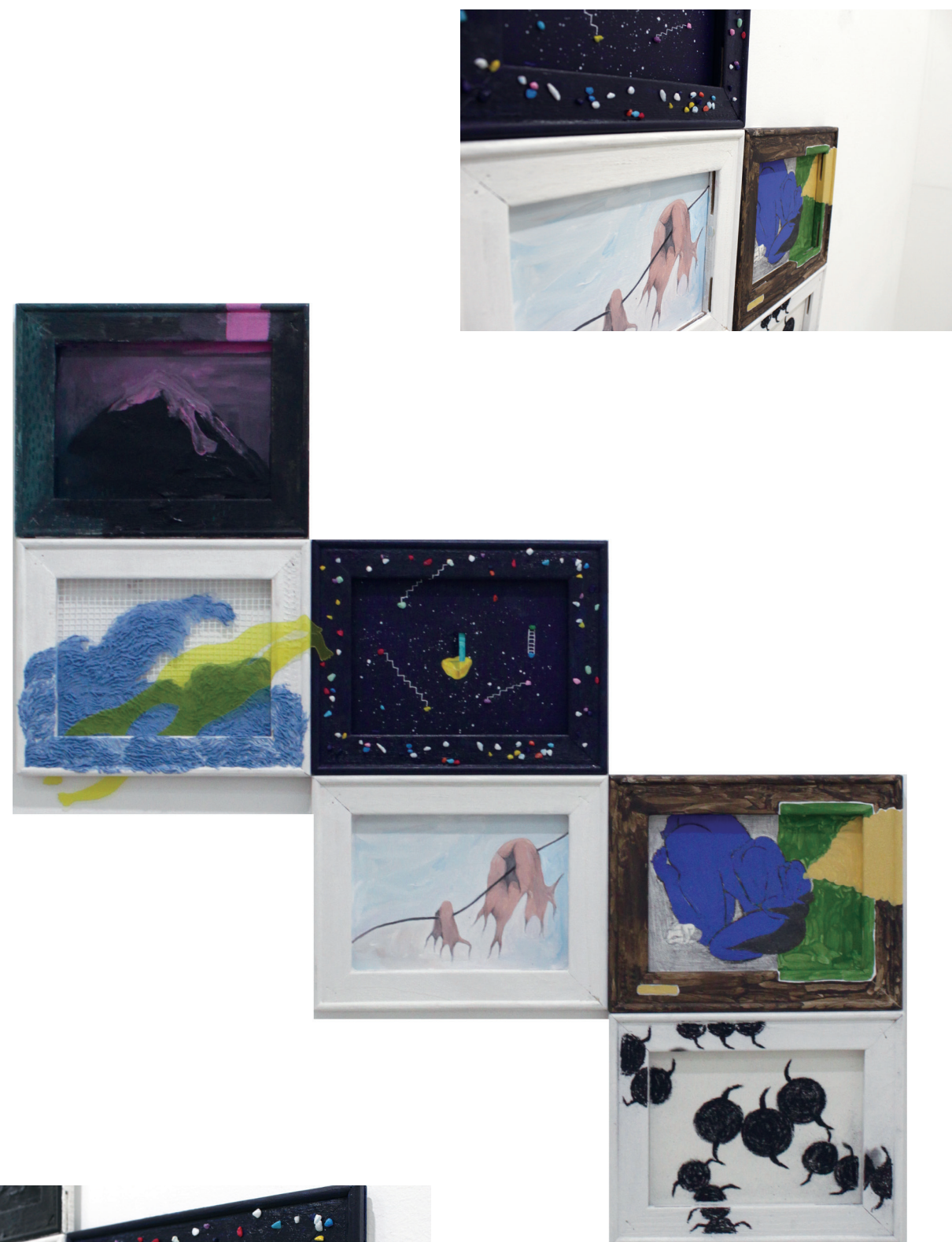
<Box>,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Clothes>, mixed media, 가변설치, 2017



<Window>, mixed media, 91x116.8, 2017



<Stairs>, mixed media ,88x81.9, 2017





<Window>, mixed media, 91x467.2, 2017



<Elevator>, mixed media, 109.2x19, 2017



<Semibasement>, mixed media, 152.8x826.5, 2017

